

■ 논문 ■

나치고고학의 등장 과정과 고든 차일드의 대응,
1933-1935

박 해 운

I. 머리말

구스타프 코시나와 마찬가지로 나는 비교언어학을 거쳐 선사고고학을 연구했다. 나는 인도유럽인의 요람에 대한 발견과 인도유럽인의 원시 문화 규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유럽고고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¹⁾

고든 차일드(Vere Gordon Childe: 1892-1957)는 고향 시드니의 블루마운틴에서 투신하기 직전인 1957년 9월 『앤티퀴티(Antiquity)』에 투고한 「회고(Retrospect)」에서 그가 고고학 연구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이를 보면 차일드가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인도유럽인, 즉 아리아인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차일드가 언급한 코시나(Gustaf Kossinna: 1858-1931)는 나치집권기 이전 독일을 대표하는 문화사고고학자로, 비교언어학을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890년대 이후 노르만주의(Nordicism)를 기반으로 한 고고학을 연구했다. 가장 순수한 아리아인인 독일인의 조상 인도게르만인, 즉 노르만인이 스칸디나비아반도와 독일 북부 지역에서 기원했다고 판단한

1) Vere Gordon, Childe, "Retrospect", *Antiquity*, 126(1958), p. 66.

코시나는 이들의 확산과정을 유물의 상대연대 수립을 통해 추적하였다. 코시나의 문화사고고학은 인종주의와 우생학이 결합된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에 기반하고 있었다. 즉 고고문화의 등급이 생물학적 우열성과 연결되며, 현재 가장 우월한 민족인 독일인의 조상이 선사시대에도 가장 발전한 문화를 이룩했다는 것이었다.

1914년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한 호주 태생의 청년 차일드는 코시나와 마찬가지로 문화사적 방법을 통해 고고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1917년 고향 시드니로 돌아온 후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한 호주노동당에서 정치가로 활동했던 좌익 사회주의자 차일드는 1922년 런던주재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대표부에서 해고된 이후 본격적으로 고고학 연구에 매진하였다. 정치적으로 침묵하고 있던 1920년대 중후반 차일드의 고고학 연구에 사회주의적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는 『유럽 문명의 여명(The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이후 『여명』으로 약칭)과 『아리아인(The Aryans)』에서 코시나의 주장을 반박하여 인도유럽인, 즉 아리아족의 조상이 노르만인이 아니라 러시아 남부에서 기원했음을 유물의 상대연대 수립을 통해 증명하려 했다. 그렇지만 이 작업은 코시나의 고고학 연구에 대한 이론적 모순에 대한 반박은 아니었다.

오히려 1920년대 중·후반 차일드는 코시나의 지지자였으며 독일의 문화개념을 받아들여 연구를 진행하였다.²⁾ 차일드는 『여명』 제1판에서 유럽 각 지역에서 나타났던 서로 다른 고고문화를 인종(race)·민족(peoples)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이 당시 차일드는 노르만인의 창의성이 탁월한 육체에 기인한다는 등 일종의 인종주의적 사고 역시 가지고 있었다.³⁾

그런데 1920년대 후반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자였던 차일드는 역사적인

2) Vere Gordon Childe, "G. Kossinna Ursprung und verbreitung der Germanen in vor- und frühgeschichtlicher Zeit", *Man*, 27(1927), pp. 54-55; Childe, "Retrospect", p. 70.

3) Vere Gordon Childe, *The Aryans: A Study of Indo-European Origins*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Knopf, 1926), pp. 211-212.

특수성을 중시하는 문화사고고학과 상반된 마르크스주의적 일반진화론을 그의 연구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차일드는 1928년에 출판한 『고대의 동방(The Most Ancient East)』에서 문명과 문화의 변화를 야기하는 사회경제적인 원인에 대해 추적하였다. 그리고 지식이 축적되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이 자연을 통제함으로써 발전한다는 그의 진화론적 단계론은 1936년 ‘신석기혁명(Neolithic Revolution)’으로 유명한 『인간이 만들어 나아가는 역사(Man Makes Himself)』에서 구체화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차일드의 고고학 이론과 연구방법론이 1935년 소련 방문을 계기로 일대 대전환되었다고 소개되고 있다.⁴⁾ 하지만 차일드는 문화사적 방법론을 포기한 것 또한 아니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차일드 고고학의 특징은 상대편년을 바탕으로 문화의 전과 과정을 추적하는 ‘전문화 지향적’ 연구와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발전 과정을 수립하는 ‘일반화 지향적’ 연구의 공존이라는 점이다.⁵⁾ 차일드가 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이론적 기반을 동시에 적용하여 고고학 연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그가 투신하기 직전에 작성한 학문적인 유언장인 「회고」에서 코시나를 언급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단서는 그가 1933년 8월 『타임즈(The Times)』에 기고한 「아리아인 이전(Before the Aryans)」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고문에서 그는 히틀러를 언급하며 독일의 선사고고학에 투영되기 시작한 나치의 인종주의 이론에 대해 경고하였다. 차일드가 그의 학문적인 유언장인 「회고」에서 코시나를 언급한 이유는 결국 나치 집권 이후 그의 고고학적 이론과 방법론이 더 이상 인종주의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었다.

따라서 차일드가 유럽 문명의 문화적 요소가 동방(Orient)에서

4) 고일홍, 「인류사 전개 과정에 대한 고고학자 차일드의 역사관 재조명」, 『인문논총』, 65집(2011), 165쪽; 최몽룡, 「차일드(Childe)와 신석기혁명」, 최몽룡·최성락 편 『인물로 본 고고학사』 (서울: 한울, 1997).

5) 고일홍, 「인류사 전개 과정에 대한 고고학자 차일드의 역사관 재조명」, 165쪽; Bruce Trigger, “Major Concepts of Archaeology in Historical Perspectives”, *Man*, 3(1968), pp. 533-534.

전파되었다는 문화사적 방법론과 함께 인종적 우열이 아닌 인류 전체의 보편적 과정으로서의 역사의 발전 과정을 추적한 일반진화론적 시각을 본격적으로 혼용한 계기가 된 시점은 1935년이 아닌 1933년이라는 것과 그 이유가 코시나의 유산인 나치고고학과 대결하기 위한 그의 정치적인 선택이었음을 본고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나치고고학의 형성 과정, 나치의 집권과 차일드의 반응, 그리고 1933년에서 영국이 독일의 재무장을 인정하고 유화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한 1935년까지 차일드의 나치고고학에 대한 대응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II. 프리크의 교육지침과 노르만주의: 나치고고학의 이론적 기반

1933년 1월 히틀러가 수상에 임명된 직후 나치 수뇌부는 역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일환으로 1933년 5월 9일 내무부장관 프리크(Wilhelm Frick: 1877-1946)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독일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였다. 차일드는 나치고고학의 위험성을 소개하기 위해 이 지침을 영어로 번역하여 1934년도 2월 『네이처(Nature)』 130호에 번역자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The Teaching and History and Prehistory in Germany」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인종이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며 문화는 인종의 창조물이라 주장한 프리크의 지침 내용 중 선사시대와 고대의 교육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빙하기 중부 유럽에 존재했던 네안데르탈인, 오리낙인, 크로마뇽인은 서로 다른 문화를 영위하였다. 즉 구석기시대(Urgeschichte)부터 문화는 인종(Rasse)의 창조물이라 보아야 한다.
2. 신석기시대의 개시 이후 노르만 인종은 북유럽에서 중부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유럽의 역사는 노르만 인종의 역사이며 그들의 문화 수준이

석기, 청동기 등의 유물에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업적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설명하라.

3. 노르만 인종은 이미 기원전 5천 년대에 중동(Hither Asia)과 북아프리카를 침공하였다. 이는 이집트 초기 무덤들에서 발견된 노르만인의 두개골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4. 수메르인의 인종적 기원은 아직 모호하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가 보여주고 있는 인도-게르만어에서 기원한(Indo-Germanic roots) 요소들을 고려할 때, 수메르문명을 이룩한 상위계급은 노르만인 정복자임을 가정할 수 있다.

5. 그리스 역사는 중부 유럽에서 시작하였다. 그리스의 귀족제는 정복자 노르만인에 의해 형성되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소수 노르만 계통의 시민과 아시아에서 기원한 토착민과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다. 민주주의와 인종 간의 혼혈로 인해 계급(인종)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리스의 문화가 쇠퇴하였다.

6. 이탈리아의 역사 역시 중부 유럽의 노르만인에서 시작하였다. 고대 로마에서 귀족과 공화파 간의 투쟁은 인종투쟁(Rassenkampf)으로 이해해야 한다.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고대 로마에서 노르만인의 형질적 요소는 거의 사라졌으며, 서력 기원 전후 대부분의 이탈리아 인구는 동방 노예들의 후손으로 구성되었다.

이 지침에서 프리크는 선사시대에 대한 연구를 바로 “탁월한 민족 과학(Hervorragend Nationale Wissenschaft)”으로 규정한 코시나의 선사고고학과 귄터(Hans Günther: 1891-1968)의 인종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독일 선사시대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⁶⁾ 그런데 이 지침에 반영된 설, 즉 스칸디나비아에서 발흥한

6) 이 두 명과 함께 프리크의 지침에는 프랑스의 노르만주의자 라푸즈(Georges Vacher de Lapouge: 1854-1936)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지침의 내용 중 노르만인의 이집트 침공설은 라푸즈의 주장에 해당한다.

노르만인의 이주와 확산에 의해 고대 지중해 지역의 문명이 탄생했으며, 결국 그리스와 로마 문명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우월한 노르만인과 열등한 토착민 간의 혼혈에 의해 쇠퇴했다는 것은 코시나와 쿨터가 독창적으로 주장한 이론이 아니다. 이 이론은 19세기 중반 인종결정론에 기반한 노르만주의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세기 초반 아리아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리아인은 바로 인도유럽어를 쓰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 언어의 기원에 대한 당시의 비교언어학적 연구는 아리아인이 현재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의 초원지대에서 기원했음을 증명하려 하였다.⁷⁾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고비노(Arther de Gobineu: 1816-1882)를 시작으로 아리아인에 관한 연구는 언어에서 인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아리아인이 스칸디나비아반도와 독일 북부 지역에서 기원하여 팽창했다는 설이 유럽에 확산되었다.

자신이 노르만 바이킹의 후예라고 믿은 프랑스의 왕당파 귀족 고비노는 1848년 2월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발발한 이후 발생한 정치적 혼란의 이유가 프랑크 귀족의 후예인 게르만인과 평민인 골인, 그리고 라틴인 간의 혼혈에 의한 정신적·육체적 타락 때문이라 생각하였다.⁸⁾ 소위 ‘과학적 인종주의’의 시발점으로 보는 『인종불평등론(Essai sur l'inégalité des races humaines)』에서 고비노는 “인종 간 차이는 영원하다(Racial differences are permanent)”라고 천명했는데, 이는 각 인종 간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우열이 환경과 교육 등의 외부적인 요소가 아닌 각 인종이 지니고 있는 타고난 핏줄에 의해 전수되는 육체적·정신적 형질에 의해

7) Tuska Benes, “From Indo-Germans to Aryans: Philology and the Racialization of Salvationist National Rhetoric, 1806-30”, S. Elgen and M. Larrimore eds., *The German Invention of Race*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6), pp. 171-175.

8) Michael Biddiss, *Father of Racist Ideology: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Count Gobineau* (London: Cox & Wyman LTD, 1970), pp. 129-131.

결정된다는 것이었다.⁹⁾

고비노는 인종을 기본적으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구분하였다. 해부학자 캄퍼르(Petrus Camper: 1722-1789)가 인종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지로 고안한 골상학의 안면각(facial angle) 이론을 바탕으로 고비노는 장두형의 백인종을 가장 지능적인 사교를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종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신체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우월한 인종’으로 규정하였다.¹⁰⁾ 그리고 유럽의 백인을 게르만인, 로마인, 알레마니인, 골인으로 재분류한 고비노는 그중 조상들의 신체적 특징, 즉 금발과 장두형의 두개골을 물려받은 신체적으로 아름답고 우수한 지적 능력을 타고난 게르만인이 문명의 창조자이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인종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가 생각한 게르만인은 근대 독일인이 아니었다. 당대 독일인들이 프랑스인보다도 더 혼혈이 심하게 이루어진 인종이라 판단한 고비노는 게르만인의 혈통적 순수성을 지닌 집단은 스칸디나비아에 남아있다고 주장하였다.¹¹⁾

1880년대 이전 독일 내에서 고비노의 영향력은 미미하였으며, 대부분의 독일 비교언어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인도유럽인의 문화가 아시아에서 기원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¹²⁾ 하지만 고비노의 인종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은 작곡가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¹³⁾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고비노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독일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9) Arther de Gobineau, translated by A. Collins, *The Inequality of Human Race* (London: William Heinemann, 1915), p. 117.

10) *Ibid.*, p. 207.

11) Biddiss, *Father of Racist Ideology*, pp. 65-66.

12) Benoit Massin, “From Virchow to Fischer: Physical Anthropology and “Modern Race Theories” in Wilhelmine Germany”, G. W. Stocking Jr. ed., *Volkgeist as Method and Ethic*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6), p. 127.

13) Gregory Blue, “Gobineau on China: Race Theory, the “Yellow Peril” and the Critique of Modernity”, *Journal of World History*, 10-1(1999), p. 115.

고비노가 촉발한 노르만주의는 중부 유럽의 독일어 사용 지역에 두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당대의 독일인이 순수한 게르만인, 즉 노르만인의 후예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1878년 독일의 인류학자인 포체(Theodor Pötsche: 1825-1899)는 노르만인의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북극해에서 사하라사막까지, 그리고 대서양 연안에서 바이칼호와 인더스강 유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북해 연안과 발트해 지역에서 아리아인의 이주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⁴⁾ 고비노에게 영향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인류학자이자 비교언어학자인 펜카(Carl Penka 1847-1912)는 포체의 이론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그는 순수한 아리아인의 혈통을 지닌 사람들의 거주 지역을 이들의 요람인 스칸디나비아반도 남부와 함께 발트해 연안, 즉 현재 독일 북부 지역을 포함시켰으며 이들이 중부 유럽, 즉 독일 남부와 오스트리아로 이주했다는 가설을 세움으로써 당대 독일어 구사자를 순수한 아리아인의 후예로 포함시키려 했다.¹⁵⁾ 펜카가 제안한 스칸디나비아 기원론은 1890년대 독일을 포함한 유럽과 심지어 북미 지역까지 격렬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친노르만주의자들이 강조한 스칸디나비아인과 독일인의 친연성에 의해 ‘노르만 인종’은 ‘아리아인’과 ‘인도게르만 인종’의 동의어로 쓰이기 시작하였다.¹⁶⁾

두 번째 문제는 노르만인이 기원한 시기를 밝힘으로써 당대 독일인의 조상인 노르만인이 유럽 문명의 창조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1886년 펜카는 아리아인이 팽창하기 이전인 석기시대에 이들의 원시 문화가 스칸디나비아에서 이미 성립되었으며, 스칸디나비아와 발트해 연안에서 중부 유럽을 거쳐 그리스와 로마로 이주한 아리아인, 즉 노르만인이 이 지역의 원주민을 정복하고 문명을 이룩했다고 주장하였다.¹⁷⁾ 이후 소수의

14)Giuseppe Sergi, *The Mediterranean Race: a Study of the Origins of European Peoples* (London: Walter Scott, 1901), p. 9.

15)Frank H. Hankins, *The Racial Basis of Civilization: A Critique of the Nordic Doctrine* (New York: Alfred·A·Knopf, 1926), p. 56.

16)Stefan Arvidsson, *Aryan Idols: Indo-European Mythology as Ideology and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p. 143.

17)Sergi, *The Mediterranean Race*, pp. 8-9.

노르만 귀족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지배했다는 사고가 독일에 급속히 확산되었다.¹⁸⁾

노르만주의가 유행처럼 번진 1880년대에 비교언어학을 연구하던 코시나는 역사시대 이전, 즉 선사시대 독일인의 조상의 기원과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고고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취락고고학(Siedungsarchäologie)’으로 대표되는 코시나가 고안한 문화사고고학의 핵심은 ‘공통된 물질문화가 발견되는 지역이 특정 집단(종족)의 영역’이라는 것과 ‘과거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독일인들의 물질문화의 특징을 소급해서 선사시대 독일 민족의 기원과 확산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었다.¹⁹⁾ 이러한 고고학적 사고와 노르만주의를 바탕으로 코시나는 1896년에 추적할 수 있는 인도게르만인의 가장 오래된 유적이 기원전 3천 년대 스웨덴 남부, 유틀란트반도와 덴마크의 도서 지역, 그리고 북부 독일의 쉘레스비히홀슈타인과 메클렌부르크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들이 각각 남진과 동진하여 후기청동기시대에 오데르강 유역과 비스와강 유역에 도달했다고 주장하였다.²⁰⁾

이러한 코시나의 이주론은 인종주의에 기반하고 있었다. 즉 이상적인 인도게르만인을 기준으로 민족은 능동적 상위계층인 “문화민족(Kulturvölker)”과 수동적 하위계층인 “토착민족(Naturvölker)”으로 구분되며, 민족적 차이는 불변하며 영원하다는 것이었다.²¹⁾ 따라서 코시나가 선사고고학을 “탁월한 민족과학”이라 주장한 이유는 바로 고고학을 역사시기 이전 현대 독일인의 직접적인 조상인 문화의 창조자

18)Hankins, *The Racial Basis of Civilization*, p. 59.

19)Ulrich Veit, “Gustaf Kossinna and His Concept of a National Archaeology”, H. Härke ed.,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2) p. 43.

20)Gustaf Kossinna, “Die Vorgeschichtliche Ausbreitung der Germanen in Deutschland”, *Zeitschrift des Vereins für Volkskunde*, 6(1896).

21)Leo Klejn, “Gustaf Kossinna (1858-1931)”, T. Murray, ed., *Encyclopedia of Archaeology: The Great Archaeologists* (Santa Barbara: ABC-Clio, 1999), p. 238.

인도게르만인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북쪽, 즉 독일에서 이주한 집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룩했다고 생각한 코시나는 당시 유럽의 고전고고학계를 지배하던 이론인 동방에서 이룩한 문화적·기술적 혁신이 지중해 지역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ex Oriente lux(빛은 동방에서 오다)’를 근거 없는 환상이라고 거부한 후 북유럽 지역에서 이주한 노르만 계통의 주민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최초의 문명을 건설했다고 주장하였다.²²⁾

이러한 코시나의 생각을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중석기시대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출현한 마글레모제문화(Maglemosian Culture)의 담당자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약 1만년 전 스칸디나비아를 중심으로 북부 유럽에 거주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 문화의 담당자는 장두형의 신체적 특징을 지닌 인도게르만인의 조상인 크로마뇽인 순록 사냥꾼의 후예들과 핀란드인의 조상인 원두형의 인종이었다. 기원전 6000년경에 시작된 온난 기후 최적기에 선-핀란드인들은 동쪽으로 이주하였으나, 원거주지에 남아있던 중석기시대 에르테빌레-엘레르벡 문화(Ertebølle-Ellebek Culture: 6000-4000 BC)의 담당자인 장두형의 선-인도게르만인들은 초기 농경과 동물의 사육을 시작하였으며 토기를 발명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영국과 북부 프랑스를 정복하여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동쪽으로 이주한 다른 일부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불히니아를 거쳐 수메르에 도달했다.²³⁾ 그리고 기원전 3000년대 발트해와 북해 연안에 거주했던 주류 원주민들이 신석기시대에 형성된 북부 인도게르만인의 직계 조상이었다. 이들은 호전적인 식민주의자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통해 식민지를 건설한 인종이었다.²⁴⁾

전형적인 노르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코시나는 인도게르만인의

22)Gustaf Kossinna, *Die Deutsche Vorgeschichte: Eine Hervorragend Nationale Wissenschaft* (Würzburg: Kabitzsch, 1912).

23)프릭의 교육지침에서는 이를 ‘제1차 노르만인의 침공’이라 표현하였다.

24)Vere Gordon Childe, *The Aryans: A Study of Indo-European Origins*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Knopf, 1926), pp. 168-169.

정신적 우월성이 신체적 특징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체질인류학의 전문가가 아니었다. 이러한 코시나의 인종관의 약한 고리를 해결해준 인물이 바로 바이마르 시대와 나치 시대 독일을 대표하는 우생학자 쿤터였다.²⁵⁾

신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유럽의 인종을 노르만인, 지중해인, 디나르인, 알프스인, 동발트인으로 구분한 쿤터의 인종관의 핵심 중 하나는 인종이 신체적 특징뿐만이 아닌 정신적 특징과의 결합이라는 것이었다.²⁶⁾ 그는 그중 가장 우월한 인종인 노르만인의 전형적인 신체적 특징을 날씬한 장신, 장두와 좁은 얼굴, 장밋빛이 도는 흰 피부, 금발, 그리고 푸른 눈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노르만인의 대표적인 정신적인 특징을 창의성으로 규정하였다.²⁷⁾

인종 간의 혼혈과 관련하여 쿤터는 인종 간의 혼혈, 특히 노르만인과 타인종 간의 혼혈에 의해 문화가 타락한다는 고비노의 이론을 계승하였다. 하지만 그는 당대의 유럽이 혼혈이 심하게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도 인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유럽에서 개별 인종이 형성된 시기를 주목하였다. 비록 쿤터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석기시대 유럽의 인종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는 장두형의 특징을 지닌 노르만인이 구석기시대 북유럽을 유랑하던 크로마뇽인의 후예라 추정하였다.²⁸⁾ 그리고 약 10000년 전, 즉 신석기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유럽에 이미 현재 인종의 조상이 존재했음을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 쿤터는 북서유럽(노르만인), 브리튼섬, 프랑스, 스페인과 이탈리아(지중해인), 알프스 산맥(알프스인), 코카서스(디나르인), 러시아(동발트인)가 각 인종의 요람이라 추정하였다.²⁹⁾

25) *Ibid.*, p. 242.

26) Hans Günther, Translated by G. C. Wheeler, *The Racial Elements of European History* (London: Methuen & Co. LTD, 1927), p. 3.

27) *Ibid.*, p. 3 and pp. 50-53.

28) *Ibid.*, p. 94.

29) *Ibid.*, pp. 111-112.

퀸터는 신석기시대가 개시된 후 인종의 이주 과정이 지속되며 혼혈이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각 인종 내에 다른 인종의 특징이 남아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주 과정의 결과, 가장 순수한 노르만 인종의 요소가 주로 그들의 요람인 스칸디나비아와 프랑스와 독일 북부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 나타나며, 이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노르만 인종의 요소가 감소하지만 지중해 지역, 발칸반도,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도 그러한 요소가 희미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퀸터는 노르만인의 요람이 아닌 지역에서 나타나는 노르만인의 신체적 특성과 유럽의 사회계층을 연결시킨 ‘인종의 층위(racial layer)’라는 개념을 고안함으로써 유럽의 역사가 노르만인의 역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 하였다. 그는 지배 인종인 노르만인을 최상위 층위, 그리고 열등한 타 인종을 아래 층위로 위치시킴으로써 당대 유럽의 인종 간의 계서(hierarchy)를 합리화하려 했던 것이었다.³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는 당대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노르만인의 신체적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귀족과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며, 또한 창의적인 직종에 종사한다고 주장했다.³¹⁾ 퀸터는 어떻게 신체적 특징이 정신적 특징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관성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유럽의 지배층, 즉 노르만인의 창의성이 바로 그들 조상의 육체적·정신적 특성이 핏줄에 의해 전달되었다는 고비노의 기본 원칙을 계승하여 인종 간의 우열논리를 전개하였다.

퀸터는 ‘인종의 층위’를 인종의 이주와 연결시켜 유럽의 역사를 구성함으로써, 문화의 창조자인 노르만인의 타고난 우월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려 하였다. 고고학자가 아니었던 퀸터는 이를 위해 증거가 비교적 희박한 선사시대보다는 유럽 문명의 정수라 인정받고 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에 주목하였다. 퀸터는 당대 독일 고전고고학의 최고 권위자인

30) *Ibid.*, pp. 111-113.

31) *Ibid.*, p. 54.

슈츠하르트(Carl Schuchhardt: 1859-1943)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원전 3천 년에서 2천 년경 다뉴브강 중류와 상류 지역으로 노르만 부족이 이주하였으며, 이 중 도리아인 전사 집단이 기원전 12세기 무렵 그리스를 침공함으로써 노르만 문명이 에게해 지역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인종의 층위는 노르만인 상류층과 토착민인 하류층으로 구성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시민이 바로 노르만인이었다고 하였다.³²⁾

퀸터는 역시 슈츠하르트를 인용하여 로마의 역사도 기원전 약 2천 년경에 알프스 북부에서 이탈리아 북부로 이주한 노르만인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이주하며 상위계층인 노르만인 및 하위계층인 알프스인과 지중해인으로 구성된 인종적 층위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이들이 로마로 이주한 이후 귀족(노르만인)으로 구성된 원로원과 하층인(토착민)의 회의체인 평민회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³³⁾ 퀸터는 이 두 문명의 쇠퇴와 멸망의 공통된 원인을 잦은 전쟁으로 인한 노르만인 귀족의 감소 및 노르만인과 토착민의 혼혈에 의한 타락에서 찾았다.

실제로 슈츠하르트의 연구는 노르만인의 이주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남부 유럽 원주민도 문화의 창조자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주민 노르만인의 문화와 원주민의 문화가 상호작용에 의해 창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그리스와 로마에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다고 주장하였다.³⁴⁾ 하지만 퀸터는 슈츠하르트의 연구 결과 중 노르만인의 이주 부분만 인용한 후 그의 인종관, 즉 인종의 층위를 혼혈에 의한 타락과 결합시킴으로써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흥망성쇠를 구성하였다.

프릭의 교육지침의 핵심인 노르만주의는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 이외에도

32) *Ibid.*, pp. 153, 164-166.

33) *Ibid.*, pp. 173-190.

34) Brent Maner, *Germany's Ancient Pasts: Archaeology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since 17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0), pp. 245-249.

훨씬 복잡한 정치적, 역사적, 학술적,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서 탄생, 발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이 이론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나치 인종주의의 역사적 정당성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코시나(선사고고학)와 쿤터(고전고고학)라는 점이다. 이 인종주의적 역사관은 나치가 정권을 잡은 직후 독일 정부의 공식적인 강령으로 채택되었다.

III. 1933년에서 1935년까지 독일 고고학계의 상황과 차일드의 반응

차일드가 에든버러대학의 아버크롬비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1929년, 세계는 1차 세계대전 종전과 소련의 탄생 이후 다시 정치적 대격변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 대폭락을 시작으로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고, 이는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촉발시켰다. 이로 인해 당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 인정받던 바이마르 헌법에 따라 운영되던 독일은 오히려 이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자유를 역이용한 반민주주의자들이 활동하면서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치가 급부상하였으며, 결국 1933년 1월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를 수상(Chancellor)으로 임명함으로써 나치 정권이 성립하였다.

나치의 집권은 차일드가 다시 정치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옥스퍼드대학 시절 반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차일드는 영국의 정보기관 MI5의 공작에 의해 1917년 호주로 귀향하였다. 고향 시드니에서 호주노동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차일드는 1922년 런던 주재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표부에서 해고된 이후 선사고고학 연구를 인생의 향로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왕립인류학회의 사서로 임용된 1925년 이후 대외적으로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후 나치가 집권한 1933년 8월 앞에서 언급한 「아리아인 이전」에서 히틀러를 언급함으로써 현실 정치에 대한 침묵을 중단하였다. 차일드는 나치의 집권 이후 직접적인 정치적 활동보다는 학문, 즉 선사고고학 연구를 통해 현실

세계의 문제에 개입하였다.

그렇다면 왜 차일드가 적극적으로 나치를 공격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가 국제사회주의(International Socialism)의 신봉자였기 때문이다. 1917년 MI5는 영국 혁명을 위해 독일의 무제한잠수함작전의 성공을 바랐던 차일드를 친독일주의자로 분류하였지만, 그가 사랑한 독일인들은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주의자였다. 당시 차일드는 영국과 독일 양국을 휩쓸고 있던 전체주의적 애국주의의 열풍이 국제사회주의자들을 매국주의자로 매도하던 상황에 분개하였으며, 독일의 극좌파 사회주의자 립크네흐트(Karl Liebknecht: 1871-1919)에 깊은 연대감을 표시하였다.³⁵⁾ 이후 차일드는 고향 호주에서 온건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호주노동당에서 활동하였으나 이때 겪은 경험은 오히려 혁명을 꿈꿨던 차일드가 현실 정치에서 떠나는 원인이 되었다.³⁶⁾

차일드는 비록 본격적으로 선사고고학의 연구에 매진한 1920년대 중·후반에 표면적으로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현실 세계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다. 그는 사회주의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당시 호주와 영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5년 공개된 MI5의 차일드 관련 비밀 문서철 『Childe, Vere Gordon(The National Archives's reference KV 2/2148)』은 차일드가 이미 나치 집권 직전에 사회주의 정치 활동을 개시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MI5는 차일드에 대한 감시를 1922년 이후 중단하였다가 1931년에 재개하였다.³⁷⁾ 이 철에 수록된 1932년 5월에 작성된 문서에는 차일드가 ‘스코틀랜드 소련협회(The Scottish U.S.S.R Society)’의 의장에 취임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차일드가 현실

35)Vere Gordon Childe, “Conscientious Objectors”, *Hermes XXIII*(1) (1917), pp. 69-70.

36)Vere Gordon Childe, *How Labour Governs: A Study of Worker's Representation in Australia* (London: The Labour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23); Rajani Palme Dutt, “The Pre-historical Childe”, *Times Literacy Supplement*, 3304(June 34, 1965).

37)MI5가 1922년 9월 28일에 작성한 문서에는 차일드가 ‘극단적인 사회주의자이며 공산주의자들과 밀접한 사이’라 기록되어 있다.

세계에 다시 개입하려고 결정한 시점이 나치 집권 이전임을 증명한다. 그리고 차일드는 1933년 그가 증오하던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정권을 획득한 나치에 반대해 그의 전공 분야인 선사고고학을 통해 인종주의자들과 대결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차일드가 나치고고학에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는 한편으로 1920년대 그의 연구에 투영된 인종주의적 사고, 특히 코시나의 영향에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 실제 1920년대 차일드의 연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이루어진 성과에 기반하고 있었다. 비록 이 시기 차일드는 ‘빛은 동방에서 오다’를 받아들여 동방에서 기원한 앞선 물질문화가 유럽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방법론은 독일의 문화사고고학에 기반하고 있었다. 차일드는 이 시기 오히려 코시나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차일드는 1927년 코시나의 ‘취락고고학’에 대해 극찬하였으며, 심지어 1928년에 출판된 코시나의 70세 기념논총에 논문도 기고하였다.³⁸⁾

1929년에 출판한 『다뉴브의 선사시대(The Danube in Prehistory)』에서 정의한 ‘문화’에 대한 개념은 차일드와 코시나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문화를 규칙적인 양식으로 구성된 “토기”, “도구”, “장식품”, “장례 의식”, “주거 형태” 등의 “복합체(complex)”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복합체의 담당자인 “문화집단(a culture group)”을 “민족(a people)”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차일드는 이 “복합체”가 특정한 신체적 유형을 보이는 “인골(skeletal remains)”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민족을 “인종(race)”이라 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³⁹⁾ 고고문화가 인종의 유산임을 인정하였다.

차일드의 사상이 보여주고 있던 모순된 이념, 즉 현실 세계 변혁을 위한

38)Katie Meheux, “Digitising and Re-examining Vere Gordon Childe’s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 *Archaeology International*, 20(2017), p. 95.

39)Vere Gordon Childe, *The Danube in Pre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9), pp. v-vi.

일종의 사해동포주의와 과거 세계에 대한 이상향인 아리아인의 우수성의 불안정한 공존은 결국 나치의 집권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33년 봄 연구를 위해 독일과 중부 유럽을 방문한 차일드는 이해 3월 5일에 치러진 독일 국가의회 선거(Reichstagswahl März 1933) 당시 베를린에 체류했다. 당시 그는 독일의 신정부가 인류학과 역사학을 민족주의를 고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것임을 예견하였다.⁴⁰⁾

1933년 차일드는 비록 나치고고학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완전히 인종주의에서 탈피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해 10월 18일 에든버러에서 열린 강연에서 “아리아인의 언어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노르만인의 신체에 특별히 자랑스러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하였다.⁴¹⁾ 이는 그가 『아리아인』에서 제안하였던 노르만인의 탁월한 신체적 특징과 언어와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아리아인의 언어적 우수성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는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1월에 스승인 마이어스(John Myres: 1869-1954) 교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차일드는 코시나의 취락고고학을 옹호하였다.⁴²⁾ 따라서 인도유럽인, 즉 아리아인의 요람을 규명하기 위해 고고학자가 될 것을 결정했던 차일드는 나치고고학의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독일 고고학계의 현실은 결국 차일드를 학문적으로 코시나와 결별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나치를 대표하는 이론가 중 한 명인 로젠베르크(Alfred Rosenberg: 1893-1946)는 문화계와 학계의 장악을 통해 나치의 독재를 뒷받침하려 하였다. 로젠베르크는 고비노와 쿤터를 계승한 노르만주의자로, 노르만인이 지배 민족인 이유를

40) Sally Green, *Prehistorian: A Biography of V. Gordon Childe* (Bradford-on-Avon: Moonraker Press, 1981), p. 85.

41) Vere Gordon Childe, “Aryan Nonsense”, *The Scotsman*(October 19, 1933), p. 11.

42) Meheux, “Digitising and Re-examining Vere Gordon Childe’s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 p. 96.

생물학적·정신적 우월성, 역사적 근원, 지리적 팽창, 그리고 문화적 우수성 등을 들어 합리화하였다. 1934년 6월에 설립된 ‘로젠베르크 관청(Amt Rosenberg)’은 나치 인종주의에 대한 교육, 선전, 문화정책을 담당하던 핵심 기관이었다. 특히 로젠베르크는 선사·원사고고학을 독일민족의 타고난 우수성을 선전할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간주하였다.⁴³⁾

코시나는 1931년 12월에 사망했으나 그의 학문적 후예들은 나치의 지원에 힘입어 1935년까지 바이마르공화국 시대 독일고고학계의 주류였던 서남아시아 연구자들과 슈츠하르트⁴⁴⁾ 대표되는 고전고고학자들을 제치고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⁴⁵⁾ 그중 로젠베르크 휘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사고고학자는 라이네르트(Hans Reinert: 1900-1990)였다. 튀빙겐대학 출신인 라이네르트는 학창 시절에 이미 베를린에서 열린 코시나의 세미나에 참가했던 열렬한 노르만주의 고고학자였다. 코시나가 설립한 독일선사고고학회(Die Deutsche Gesellschaft für Vorgeschichte)에서 활동하던 라이네르트는 1931년 9월 나치에 정식으로 입당하였다. 라이네르트는 1934년 로젠베르크 관청의 역사·선사부 수장(Reisamtsleiter der Abteilung für Ur- und Frühgeschichte im Amt Rosenberg)으로 임명됨으로써 독일고고학계를 장악하였다.

로젠베르크 관청이 고고학계를 장악한 초기, 독일의 고고학자들은 잠시 당황했으나 곧 나치의 집권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치 집권 이전 독일의 고고학계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선사고고학의 유급 교수직은 오직 마르부르크대학에만

43)Henning Haßmann, “Archaeology in the “Third Reich””, H. Härke ed.,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2), p. 75.

44)슈츠하르트는 나치집권기 독일 고고학의 연구 방향에 대해 소극적으로 저항하였다(Sabine Wolfram, “‘Vorsprung durch Technik’ or ‘Kossinna Syndrome’?: Archaeological Theory and Social Context in Post-war West Germany”, H. Härke ed.,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2), p. 186.

45)Bettina Arnold, “The Past as Propaganda: Totalitarian Archaeology in Nazi Germany”, *Antiquity*, 244(1990), pp. 467-468.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선사고고학을 인종주의의 선전에 핵심 분야로 인식한 나치의 지원에 의해 독일 내 학교, 박물관, 박물관 등에 필요한 고고학자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독일의 고고학자들은 나치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⁴⁶⁾ 아놀드(Arnold)⁴⁷⁾가 “파우스트의 거래(Faustian bargain)”라 정의한 고고학자들과 나치의 협력관계는 1934년에 개시되었다.

차일드는 비록 코시나의 방법론에 미련을 버리지는 못했지만 1933년에 이미 나치고고학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영국의 고고학계는 차일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1934년 1월 윌리엄즈-프리먼(J. P. Williams-Freeman: 1858-1943)은 차일드를 공격하고 인종주의를 옹호하는 논문을 『엔티퀴티』 29호에 발표하였다. 1934년 2월 차일드가 마이어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자신은 나치가 집권하고 있는 독일에 방문하지 않을 것이며, 영국의 인류학과 고고학에 투영된 파시스트적 사고를 증오한다.’고 적혀있다.⁴⁸⁾

따라서 차일드의 사상적인 혼란은 1934년 2월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일드는 마이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프릭의 교육지침을 번역하여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국의 고고학자들에게 익명으로 발송할 것임을 알렸다. 그리고 그는 이 번역문을 『네이처』에 게재하였다. 차일드는 독일 고고학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유럽의 고고학자들에게 알림으로써 반파시스트 운동을 개시하였지만 그의 이러한 활동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당시 유럽 내 고고학자 대부분은 독일

46) Haßmann, “Archaeology in the ‘Third Reich’”, pp. 86-90; Heinrich Härke, “Archaeology and Nazism: A Warning from Prehistory”, V. Mordvintseva, H. Härke and T. Shevchenko eds., *Archaeological and linguistic research: Materials of the Humboldt-Conference* (Simferopol - Yalta, 20-23 September, 2012) (Kiev: Stilos, 2014), pp. 34-35.

47) Bettina, Arnold, “‘Arierdämmerung’: Race and Archaeology in Nazi Germany”, *World Archaeology*, 38-1(2006), pp. 13-14.

48) Terry Irving, *The Fatal Lure of Politics: The Life and Thought of Vere Gordon Childe* (Clayton: Monash University Press, 2020), p. 279.

내의 상황에 무관심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동조하기까지 하였다.⁴⁹⁾

게다가 당시 영국의 정치계는 나치의 독재와 팽창을 묵인하고 있었다. 1935년 3월 히틀러는 베르사유조약의 파기와 독일군의 재군비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전쟁의 발발과 공산주의의 팽창을 두려워한 영국 정부가 나치 독일에 대해 유화정책(Appeasement)을 채택하고 영국-독일 해군조약(Anglo-German Naval Agreement: 1935년 6월 18일)을 체결함으로써 베르사유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일드는 1935년 12월에 발표한 「선사학의 방법론과 목표의 전환(Changing Methods and Aims in Prehistory)」(이후 「전환」으로 약칭)에서 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차일드는 「전환」에서 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종의 선언서로 볼 수 있는 이 글에는 그가 1933년 이후 발표한 나치고고학을 비판한 저술들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인류 문화의 진보에 있어서의 전파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트리거가 지적한 ‘일반화 지향적 연구’와 ‘전문화 지향적 연구’의 합일을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차일드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나치고고학의 근간을 공격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차일드의 나치고고학에 대한 대응

차일드는 독일에서 선사고고학이 아리아인의 인종적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학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한 최초의 원고인 「아리아인 이전」에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였다. 첫째, 동방에서 문명이 시작했을 때 독일인과 앵글로색슨인의 조상은 발트해 연안의 야만인(savages)이었다.

49) Margarita Díaz-Andreu, "Childe and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Archaeology", *European Journal of Archaeology*, 12(2009), pp. 97-99.

연도	발표문	발표지	비고
1933	Before the Aryans	The Times, Aug 3	일간지
	Races, Peoples and Cultures in Prehistoric Europe	History 18(October): pp.193-203	학술지
	Aryan Nonsense	The Scotsman, Oct 19	일간지
	Is Prehistory Practical?	Antiquity 7(28): pp. 410-418	학술지
	Where Did Culture Arise?	The Plebs 25: pp. 268-271	사회주의 계열 월간지
1934	Anthropology and Herr Hitler	Discovery 15: pp. 65-68	대중잡지
	The Teaching of History and Prehistory in Germany	Nature 133: pp. 298-299	번역문
1935	Changing Methods and Aims in Prehistory	Proceedings of the Prehistoric Society I: pp. 1-15	학술지

표1 고든 차일드가 1933-1935년에 발표한 반나치고고학 관련 원고

둘째, 아리아인은 혈연집단이 아닌 언어집단이다. 이러한 차일드의 주장은 인종은 언어가 아닌 혈연집단이라는 것과 북부 유럽에서 기원한 노르만인이 문명의 창조자라는 노르만주의의 핵심적인 전제에 대한 반론이었다. 1935년 12월까지 차일드는 「아리아인 이전」을 포함해 총 8편의 원고를 통해 나치고고학을 비판하였다(표 1). 그중 학술지에 발표한 세 편의 논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종결정론에 대한 거부: 인간은 문화적 존재

앞에서 언급했던 프릭의 교육지침에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구석기시대에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이 서로 다른 문화를 영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 지침은 두 문화 간의 우열을 논하고 있지 않으나 장두형의 크로마뇽인이 노르만인의 조상으로 인식되었음을 고려할 때 인종 간의

우열이 이미 후기구석기시대에 나타났음을 가정하였다. 특히 쿼터는 네안데르탈인의 신체적 요소가 현대 유럽의 범죄자들에게서 주로 발견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장두형의 우월성이 이미 후기구석기시대에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노르만주의자들이 인종의 형성 요소로서 환경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중 일부는 빙하기의 가혹한 환경에서 자연선택에 의해 살아남은 강인한 신체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이들이 노르만 인종의 직계 조상이라 판단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석기시대 초기 빙하가 북쪽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빙하로 둘러싸여 있던 고립된 지역(ice-free areas)에서 노르만인이 진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⁵⁰⁾ 즉 인종, 그중 노르만인의 형성은 환경의 산물이지만, 노르만 인종이 고착화된 이후에는 이들의 능력이 핏줄에 의해 전승된다는 것이었다.⁵¹⁾ 이들의 생각은 멘델의 유전학과 사회진화론의 적자생존 개념이 결합한 우생학적 사고를 반영한 것이었다.⁵²⁾ 그리고 나치 시대에 선사고고학은 생물학적 우열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며 인종의 진화는 바로 열등한 형질의 제거 과정이라는 인종위생학(racial hygiene)의 역사적 기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학문으로 기능하였다.⁵³⁾

차일드는 이 문제에 직면하여 순수한 인종 개념을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생물학적으로 동물의 품종(varieties)과 인간의 인종(race)을 비교할 수 있는데, 품종은 특정한 지역의 제한된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자연

50) Richard McMahon, *The Races of Europe: Anthropological Race Classification of Europeans*, Unpublished Ph.D Thesis at Th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2007).

51) Amos Morris-Reich, "Race, ideas, and ideals: A comparison of Franz Boas and Hans F.K. Günther", *History of European Ideas*, 32-3(2006), p. 323.

52) Amir Teicher, *Social Mendelism: Genetics and Politics of Race in Germany, 1900-19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p. 124.

53) 독일의 인종위생학에 대해서는 김호연, 「과학의 정치학 : 독일의 인종위생(Rassenhygiene)」, 『인문과학연구』, 18집(2007) 참조.

상태에서 품종 간의 상호교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고 한다.⁵⁴⁾ 차일드는 환경에 적응하는 종으로써 인간 역시 서로 다른 신체적 특징을 보인다고 인정하였다. 예를 들면 흑인의 신체적 특징은 아프리카의 열대 기후에 적응한 결과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⁵⁵⁾ 이러한 차일드의 주장은 앞에 언급한 노르만주의자들의 인종 형성 논리와 유사해 보인다. 그렇지만 차일드는 2만년 동안 지구의 기후는 수시로 변동하였으며, 인간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교류함으로써 상호 교배(interbreeding)되어 왔다고 하였다.⁵⁶⁾

아리아인의 형성과 관련하여 차일드는 기원전 3000년경 노르만 문화의 유적의 경우에도 동일한 부장품이 매납된 무덤들의 두개골을 분석해 보면 장두형과 극단적인 단두형,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고고문화를 인종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⁵⁷⁾ 결국 차일드는 나치고고학자들이 주장한 순수한 인도계르만인의 선조가 이룩한 문화 역시 혼혈인의 문화라고 보았다.

차일드는 혼혈의 긍정성을 인정하였으나 인간의 상호 교배가 어떻게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생물학 전문가가 아니었던 그는 단지 인간의 신체적 특징, 그중에서도 인골의 형태가 정신적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문화의 우열을 신체적 특징에 기반한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설명한 노르만주의의 모순점을 논파하기 위해 차일드는 인간이 기원전 약 2만 5천년 전부터 문화를 사용하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라는 동일한 종(species)임을 강조하였다.⁵⁸⁾

54)Vere Gordon Childe, "Races, Peoples and Cultures in Prehistoric Europe", *History*, 18(October, 1933), p. 195.

55)*Ibid.*

56)Vere Gordon Childe, "Is Prehistory Practical?", *Antiquity*, 7-28(1933), p. 414.

57)*Ibid.*, p. 417.

58)Vere Gordon Childe, "Races, Peoples and Cultures in Prehistoric Europe", p. 194.

차일드는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다른 동물과는 구분되는 신체적 특징을 가진 존재로 판단함으로써 인종위생학자들이 도입한 생물학적 법칙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는 지난 2만년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으며, 복잡한 두뇌와 신경망을 가지고 있다.⁵⁹⁾ 즉,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의 우수한 신체적 특징에 의해 형성된 문화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동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1. 문화는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환경에 반응하게 하는 도구이다. 추위와 적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동물의 경우 털이나 뿔과 같은 신체 기관을 사용한다. 하지만 인간은 불, 의복, 무기 등의 신체적 특징이 아닌 문화 요소를 통해 대응한다.⁶⁰⁾

2. 문화는 언어에 의해 계승된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신경계는 외부의 조건에 반응하지만, 이 반응의 경험이 곧바로 형질화되어 후세에 전달되지는 않는다. 동물의 경우 획득한 형질이 생존에 유리할 경우 누대에 걸친 자연선택에 의해 후세로 전달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발달된 두뇌와 신경계에 의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선대의 경험을 바로 후세에게 전달할 수 있다.⁶¹⁾

3. 문화는 '인종'이 아닌 '사회적 유산(social heritage)'이다. 개별 문화는 동일한 전통, 제도, 그리고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한 공동체와 일치한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에는 선사시대 이후 앵글로색슨인, 데인인, 그리고 노르만인 등이 침공하였으며 현재 인구는 이들의 혼혈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공통의 언어와 제도, 그리고 물질문화를 공유한다. 문화는 생물학적 유전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소통 수단인 언어를 통해 계승되고 발전한다. 따라서 문화 담당자의 명칭을 '인종'이 아닌 동일한 언어를 구사하는 집단을

59) Vere Gordon Childe, "Is Prehistory Practical?", pp. 411-412.

60) *Ibid.*, p. 412.

61) *Ibid.*

의미하는 사회학적인 용어인 ‘민족(people)’으로 대체해야 한다.⁶²⁾

위의 내용을 보면 차일드는 인간의 문화를 크게 ‘공통문화’와 ‘개별문화’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 ‘공통문화’는 호모 사피엔스가 외부적 요소를 접했을 때 두뇌와 신경망이 조정하는 신체 외적인 기관 또는 도구라 정의할 수 있다. 차일드⁶³⁾가 인간도 유인원의 후손인 동물로 정의했음을 고려할 때, 그는 문화를 사람속(Homo)의 신체적 진화 과정에서 획득된 독특한 생물학적인 형질로 판단했다고 할 수 있다. 차일드는 최종 진화 단계인 호모 사피엔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문화, 무엇보다도 도구의 사용을 통해 인간이 동물들과는 다르게 환경과 대응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소위 인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신체적 형질과 연결된 정신적 능력의 우열이 환경에 대해 생물학적인 적응 방식으로 후기구석기시대에 나타났다는 나치고고학자들의 추정에 대한 반론이었다.

‘개별문화’는 고고문화와 대응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한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고 다른 공동체와는 구분되는 일종의 집합의식에 의해 발현되는 물질문화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차일드는 개별문화를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혼혈집단의 생활양식으로 판단하였는데, 이 역시 노르만주의자들의 인종 개념, 즉 인종은 언어집단이 아닌 혈연집단이라는 정의를 거부함으로써 생물학적 개념인 인종과 사회적 개념인 문화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려 한 것이었다.

결국 차일드의 생각은 인류의 역사가 인간이 생물학적 종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의 보편성과 인간이 끊임없이 교류하고 이동하여 형성되어 나타나는 역사적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 문화의 개별성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차일드 고고학의 특징인 ‘일반화지향성’

62) *Ibid.*, pp. 199-200; Vere Gordon Childe, “Is Prehistory Practical?”, p. 417; Vere Gordon Childe, “Changing Methods and Aims in Prehistory”, T. C. Patterson and C. E. Orser Jr., ed., *Foundations of Social Archaeology: Selected Writings of V. Gordon Childe* (New York: Altamira Press, 2004), p. 29.

63) *Ibid.*, p. 411.

과 ‘전문화지향성’의 합일은 결국 나치의 인종주의 고고학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체계화되기 시작된 것이었다. 이 체계화 과정은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을 진화가 아닌 진보라는 개념으로 보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2. 문화의 진보(progress)에 대한 믿음

“우리가 진보하여 왔는가? 라고 묻는 것은 물론 의미 없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오로지 긍정적인 답변밖에 없다. 진보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 왔는가를 말해주는 것과 진보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역사다.”⁶⁴⁾

차일드는 「전환」에서 위와 같이 인간의 역사는 진보를 향해 진행되어 왔다고 선언하였다. 차일드는 일반적으로 진화론자로 인식되지만, 그는 실제 인류사의 사회경제적인 발전단계를 설명할 때 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는 진화를 생물종의 형성 과정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했으며, 인간의 경우 호모 사피엔스의 성립까지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특징인 문화의 진보에 의해 인간의 역사가 전개된다는 발전지향적인 역사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일드의 역사관은 노르만주의, 즉 유전학과 사회진화론을 결합함으로써 가장 우수하고 순수한 아리아인인 노르만인이 지속적인 혼혈에 의해 퇴행되어 왔다고 한 주장의 종착점인 나치의 퇴보적인 역사관을 반박한 것이었다. 나치의 역사관은 호모 사피엔스가 형성된 이후에 나타난 인종의 형성과 이에 파생된 우열인자의 출현을 긍정하고, 이 열성인자가 혼혈을 통해 노르만인에게 유입되어 최종적으로 노르만인이 소멸된다고 인식하였다. 결국 나치의 역사관에는 당대 독일인에게서 열등한 형질을 제거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영광스러운 인종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운명론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었다. 차일드는 순수한 인종공동체의 재현을

64) Vere Gordon Childe, “Changing Methods and Aims in Prehistory”, p. 37.

당대 독일 민족의 운명으로 제시한 나치에 직면하여 인간의 역사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진행된다는 발전지향적인 세계관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런데 차일드는 문화가 진보하는 방향이 생물의 진화 과정과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물은 종의 생존을 위해 진화한다. 이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개체의 수가 증가하지만, 이 과정이 실패하면 그 종은 결국 멸종한다. 이와 비슷하게 문화의 본질적인 속성 역시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의 생존을 위한 도구이다. 동물의 경우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누대에 걸친 유전적 형질의 변경이 필요하지만 인간은 신체 외적인 기관인 문화를 통해 즉시 대응함으로써 생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문화가 진보한다면 인구수는 증가할 것이다.⁶⁵⁾

민족을 ‘문화민족’과 ‘토착민족’으로 구분하여 선사시대 노르만인만이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코시나와 달리, 차일드는 모든 인간집단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특성인 문화를 통해 사회가 일반적으로 (universal) 발전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차일드의 관점은 단계지향적인 시기구분론에 잘 나타난다. 특히 차일드는 소련을 방문한 후에 발표한 「전환」에서 도구의 발달과정을 기반으로 한 삼시대법에 사회경제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인간의 역사가 구석기시대(식량채집)-신석기시대(식량생산)-청동기시대(노동의 전문화)-철기시대로 진행된다는 발전단계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전환」에서 차일드는 “신석기혁명(neolithic revolution)”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⁶⁶⁾ 즉, 식량 생산 경제가 등장하면서 인간은 식량을 수요에 따라 공급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생산력이 증대되며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삶의 획기적인 개선과 사회조직의 복잡화라는 혁명적인 변화를 수반하였으며 이를 통한 문화의 진보는 인간이라는 종의 생존에 유리한

65) *Ibid.*, pp. 38-39.

66) *Ibid.*, p. 33.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제안하였다.⁶⁷⁾

선사고고학의 전문가인 차일드는 동일한 시간대에 존재했던 문화집단을 같은 시기로 분류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차일드는 석기의 형태를 기반으로 쿡선장(Captain James Cook: 1728-1779) 시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문화와 기원전 5천년 전 나일강 유역의 타시안족(Tasian)의 문화를 동 시기인 신석기시대의 단계로 정의하였다.⁶⁸⁾ 이는 한편으로는 마오리족의 문화가 당대 유럽에 비해 낮은 단계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생계경제와 사회조직이 선사시대를 포함한 다른 신석기문화를 영유하는 집단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각 인간집단의 유사한 발전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차(time lags)’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⁶⁹⁾ 이러한 시차가 발생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호모사피엔스의 종적 특성인 언어를 매개체로 한 경험의 공유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차일드는 문화 진보의 근본적인 요소로 경험의 풀(pool)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의 축적에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 집단이 고립에서 탈피하고 교류함으로써 이 과정이 가속화되었다고 제안하였다.⁷⁰⁾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생물학의 전문가가 아니었던 차일드는 선사시대 민족의 형성 과정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문화사고고학 전문가로서의 차일드는 주민의 이주를 강조했던 나치고고학자들을 반박하고 문화의 전파가 경험의 풀을 확대시킴으로써 어떻게 인간 사회를 발전시켰는지 증명할 수 있었다.

67) 차일드가 제안한 사회 발전 단계론은 기술의 발전이 문화의 진화를 이끌어 낸다는 1960년대 미국의 신진화론(Neo-evolutionism)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차일드는 기술의 발명과 혁신을 통해 자연의 개발과 통제한다는 인간 사회의 내적 메커니즘을 강조한 반면에 신진화론자들은 문화의 진화가 대체로 생태적 요소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68) *Ibid.*, pp. 26-27.

69) *Ibid.*, p. 26.

70) Vere Gordon Childe, “Is Prehistory Practical?”, p. 412.

그는 구대륙의 고고학적 증거는 ‘민족들(peoples)’이 끊임없이 물품을 교환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 물품들의 거래 과정을 통해 사고와 발명이 전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의 경험의 풀이 확대되고 각 민족들이 창조한 지식과 도구가 공유된다고 제시하였다.⁷¹⁾ 이 지점에서 차일드가 18세기 마오리족을 언급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즉, 차일드는 마오리족이 외부와 비교적 고립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에 그 사회에 문화적 지체 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일드가 어디를 선사시대에 가장 선진적인 문화가 발생한 지역으로 판단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은 나치고고학자들이 주장한 스칸디나비아 남부와 독일 북부 지역이 아니라 인도유럽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 유역을 포함하는 동방이었다. 차일드는 기원전 3000년대 이 지역에서 야금술, 문자, 수레, 산수, 조각, 관개시설 등으로 상징되는 문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신석기시대에 교역과 전파가 활발히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동방이었기 때문이었다.⁷²⁾ 특히 차일드는 문명을 ‘민족의 국경을 초월하는 집단적 전통의 산물’로 정의함으로써⁷³⁾ 문화는 특정 인종의 산물이며 혼혈은 결국 문화의 타락을 불러온다는 나치고고학의 근본적인 전제를 붕괴시키려 하였다.

이 지점에서 고려할 사항은 이 시기 차일드의 ‘전문문화지향적 연구’, 즉 문화사적 방법론이 역사의 특수성과 개별 사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차일드는 퇴보의 역사관을 반복하기 위해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가 진보의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고고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차, 즉 선진 문화와 후진 문화의 공존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차일드는 이 문제를 선진적인 문화의 전파에 의해 후진적인 지역에서 경험의 풀이 확대된다는 기능주의적

71) *Ibid.*, p. 417.

72) *Ibid.*, pp. 417-418; Vere Gordon Childe, “Races, Peoples and Cultures in Prehistoric Europe”, p. 203.

73) Vere Gordon Childe, “Is Prehistory Practical?”, p. 418.

전파론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차일드는 이러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빛은 동방에서 오다’를 강조함으로써⁷⁴⁾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한 문화 요소의 전파에 의해 유럽에 문명이 발생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였다. 기원전 3천년 전 발트해와 북해 연안의 야만적인(savage) 수렵 채집 경제인 사냥과 어로에서 기원한 노르만인의 문화는 마오리족과 마찬가지로 미개한(barbarous) 것이었음에 반해, 유럽에서 최초로 발생한 문명인 당대 크레타섬의 미노스 문명의 담당자는 비인도유럽어 사용자인 아시아인들이었다. 그런데 기원전 2천년대의 복잡한 고고학적 증거는 노르만인이 그리스로 남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인도유럽인이 그리스 본토를 점령한 직후 시작된 미케네 문화 단계의 고고학적 증거들은 상당히 빈약하고 파괴적이다. 이후 이 문명인들을 침공했던 아리아인의 언어를 쓰는 인도와 중동 지방(Hither Asia)의 이주자들이 동방의 위대한 발견인 농경, 야금술, 항해술 등을 그리스 반도를 포함하는 알프스산맥 아래의 유럽 지방에 전파함으로써 유럽은 미개 단계를 벗어났다.⁷⁵⁾

차일드는 남부 유럽뿐만이 아니라 북부 유럽의 문화도 동방에서 기원한 선진적인 문화 요소에 의해 청동기시대에 접어든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미개인인 노르만인이 이주 과정을 통해 선진적인 문화를 접함으로써 문명화되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차일드에게 있어서 문화의 진보는 인종의 우열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자연적인 법칙이었다. 즉, 그는 종적동일성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를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 문화가 이룩한 앞선 문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문화 전파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1933년에서 1935년까지 차일드는 자신의 진보 지향적인 역사관을

74)Vere Gordon Childe, “Changing Methods and Aims in Prehistory”, p. 41.

75)Vere Gordon Childe, “Races, Peoples and Cultures in Prehistoric Europe”, pp. 201-203.

체계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1936년 출간한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역사』에서 그가 문명이 시작된 곳이라고 생각한 동방에서 인간이 어떻게 문화의 진보를 이루며 일반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발표한 「노르만 문화의 유산(The Antiquity of Nordic Culture)」을 시작으로 그가 가장 선진적인 문물로 판단한 청동기를 중심으로 에게해, 발칸반도, 카프카스, 다뉴브강 유역, 중부 유럽과 북부 유럽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교차 편년을 수립하는데 진력을 다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문화 요소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어떤 루트를 거쳐 발트해와 북해 지역까지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나치고고학자들이 주장한 문화의 북부 유럽 기원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론하였다.

V. 맺음말

차일드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9년 3월에 작성한 『여명』 제3판의 서문에서 “정치적 신조(political dogma)”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유럽의 선사고고학 연구를 비판하였다. 하지만 차일드의 고고학 연구 역시 정치적인 신념을 떠나 가치중립적인 것은 아니었다. 당대 유럽인들은 나치 집권 초기 이들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반파시스트였던 차일드는 1933년에 이미 인간의 자유를 탄압하는 나치의 집권이 결국 근대 유럽 문명을 파괴하고 다시 “암흑시대(The Dark Age)”로 되돌릴 것을 두려워하였다.⁷⁶⁾ 그리고 이 인종주의적 전체주의 집단이 선사고고학 연구를 이용해 인종 간의 우열을 증명하고 과거 독일민족이 이주한 영역을 바탕으로 영토의 확장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구축하고 있을 때, 국제주의자였던 차일드는 이를 적극적으로 논파할 이론과 방법론을 체계화하였다.

76)Vere Gordon Childe, “Is Prehistory Practical?”, p. 410.

사실 차일드는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이미 선사시대 때 동방이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지역이었으며 이곳에서 전파된 앞선 문물에 의해 유럽이 문명화되었다는 연구들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나치의 등장을 그의 연구가 대 전환되었던 계기로 보기보다는, 그가 선사고고학자를 꿈꾸던 어린 시절부터 유지해 온 인종주의적 시각을 최종적으로 폐기하는 계기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바로 나치고고학의 기본 전제에 대한 대척점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1935년까지 차일드는 인간은 종적으로 동일한 존재라는 점, 문화는 인종이 아닌 사회적 유산이라는 점, 문화의 확산이 우수한 주민의 이주가 아닌 선진적인 물질문화의 전파에 일어난다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노르만주의 고고학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1936년부터 인간 역사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며, 문화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그의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고고학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차일드의 역사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회주의적 관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차일드는 계급투쟁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가 주장한 지식의 축적에 의한 인류의 사회경제적 진보 과정은 교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설정한 경제결정론적 발전 단계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본고는 차일드가 어떻게 나치고고학에 대응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 주제는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다.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연구교수, haewoon.park@gmail.com

주제어(Key words):

고든 차일드(Vere Gordon Childe), 구스타프 코시나(Gustaf

Kossinna), 노르만주의(nordicism), 나치고고학(Nazi archaeology),
일반진화론(universal evolutionism), 문화사고고학(culture-historical
archaeology)

투고일: 2021.03.29, 심사일: 2021.05.03, 게재확정일: 2021.05.04.

<국문초록>

나치고고학의 등장 과정과 고든 차일드의 대응, 1933-1935

박 해 운

고든 차일드(Vere Gordon Childe)는 20세기 전반 선사고고학계를 대표하는 연구자였다. 차일드는 1930년대 중반부터 문화사적 방법론과 일반진화론적 시각을 혼용하여 인류사의 전개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차일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그가 1935년 소련에 방문한 후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을 도입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인류역사의 진보에 대해 주장하기 시작한 계기는 소련 방문이 아니라 나치의 등장 때문이었다.

1920년대 독일의 문화사에 기반하여 유럽문명의 기원과 전파과정을 추적하던 차일드는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주의의 신봉자였다. 당시 코시나(Gustaf Kossinna)로 대표되는 독일의 선사고고학자들은 19세에 등장한 노르만주의(Nordicism)를 기반으로 순수한 가장 우수한 아리아인인 독일인의 선조 노르만인들이 선사시대에 스칸디나비아반도와 북부 독일 지역에서 우수한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이들의 이주에 의해 유럽에 문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고고학이 나치의 등장과 함께 독일 정부의 공식 강령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차일드는 그의 연구에 영향을 끼친 코시나의 시각을 배격하고 인간의 종적 동일성을 주장하며 인류의 일반적인 진화과정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 차일드는 노르만주의를 논박하기 위해 선사시대 노르만인이 문명의 창조자가 아니라 동방(the Orient)의 선진적 문화적 요소가 유럽에 전파되었음을 문화사적 방법론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Abstract>

Gordon Childe's Refutation on the Ideologic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s of Nazi Archaeology, 1933-1935

Park, Haewoon

Vere Gordon Childe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archaeologist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From the mid-1930s onwards, Childe began to explain the way of the progress of human history by coalescing two antithetical methods, culture-historical approach and universal evolutionary perspective. Most studies on Childe's works have suggested that he adopted the marxist-type evolutionary theory after his visiting the Soviet Union in 1935. However, this article reveals that the momentum of the change that Childe insisted the progress of the human history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Nazi regime in 1933 rather than his contact on archaeologists in the Soviet Union.

In 1920s, Childe was a culture-historian influenced by the tradition of German archaeology represented by Gustaf Kossinna. However, The Kossina-type archaeology embedded with racism became the official discipline in the German school under the Nazi regime. In these circumstances, as a socialist advocating internationalism and anti-racism, Childe argued the universal process of the human progress. Nevertheless, Childe did not deny the methodological usefulness of culture-historical approach to explain the direction of the human culture. By emphasizing the diffusion of the advanced cultural elements originated in the Orient to Europe, Childe could refute the fundamental presumption of archaeologists in the Nazi

나치고고학의 등장 과정과 고든 차일드의 대응, 1933-1935

Germany that Scandinavia and northern Germany was the cradle of the European civilization.

참 고 문 헌

1. 사료

MI5, 『Childe, Vere Gordon』, The National Archives's Reference KV 2/2148.

2. 단행본

Arvidsson, Stefan, *Aryan Idols: Indo-European Mythology as Ideology and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Biddiss, Michael, *Father of Racist Ideology: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Count Gobineau* (London: Cox & Wyman LTD, 1970).

Maner, Brent, *Germany's Ancient Pasts: Archaeology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since 17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Childe, Vere Gordon, *How Labour Governs: A Study of Worker's Representation in Australia* (London: The Labour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23).

Childe, Vere Gordon, *Man Makes Himself* (London: Watt, 1936).

Childe, Vere Gordon, *The Aryans: A Study of Indo-European Origins*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Knopf, 1926).

Childe, Vere Gordon, *The Danube in Pre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9).

Childe, Vere Gordon, *The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 1st edition*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Knopf, 1925).

Childe, Vere Gordon, *The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 3^d edition*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Knopf, 1939).

Childe, Vere Gordon, *The Most Ancient East: The Oriental Prelude*

- to European Prehistory*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Knopf, 1928).
- Gobineau, Arther de, Translated by A. Collins, *The Inequality of Human Race* (London: William Heinemann, 1915).
- Green, Sally, *Prehistorian: A Biography of V. Gordon Childe* (Bradford-on-Avon: Moonraker Press, 1981).
- Günther, Hans, Translated by G. C. Wheeler, *The Racial Elements of European History* (London: Methuen & Co. LTD, 1927).
- Hankins, Frank H., *The Racial Basis of Civilization: A Critique of the Nordic Doctrine* (New York: Alfred·A·Knopf, 1926).
- Irving, Terry, *The Fatal Lure of Politics: The Life and Thought of Vere Gordon Childe* (Clayton: Monash University Press, 2020).
- Kossinna, Gustaf, *Die deutsche Vorgeschichte: Eine Hervorragend Nationale Wissenschaft* (Würzburg: Kabitzsch, 1912).
- McMahon, Richard, *The Races of Europe: Anthropological Race Classification of Europeans*, Unpublished Ph.D Thesis at Th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2007).
- Sergi, Giuseppe, *The Mediterranean Race: a Study of the Origins of European Peoples* (London: Walter Scott, 1901).
- Teicher, Amir, *Social Mendelism: Genetics and Politics of Race in Germany, 1900-19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3. 논문

- 고일홍, 「인류사 전개 과정에 대한 고고학자 차일드의 역사관 재조명」, 『인문논총』, 65집(2011).
- 김호연, 「과학의 정치학 : 독일의 인종위생(Rassenhygiene)」, 『인문과학연구』, 18집(2007).

- 최몽룡, 「차일드(Childe)와 신석기혁명」, 최몽룡·최성락 편 『인물로 본 고고학사』 (서울: 한울, 1997).
- Arnold, Bettina, “The Past as Propaganda: Totalitarian Archaeology in Nazi Germany”, *Antiquity*, 244(1990).
- Arnold, Bettina, “‘Arierdämmerung’: Race and Archaeology in Nazi Germany”, *World Archaeology*, 38-1(2006).
- Baudou, Evert, “Kossinna Meets the Nordic Archaeology”, *Current Swedish Archaeology*, 13(2005).
- Benes, Tuska, “From Indo-Germans to Aryans: Philology and the Racialization of Salvationist National Rhetoric, 1806-30”, S. Elgen and M. Larrimore eds., *The German Invention of Race*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6).
- Blue, Gregory, “Gobineau on China: Race Theory, the “Yellow Peril” and the Critique of Modernity”, *Journal of World History*, 10-1(1999).
- Childe, Vere Gordon, “A Labour Premier Meets His Master”, *Labour Monthly*, 6(June 1924).
- Childe, Vere Gordon, “Aryan Nonsense”, *The Scotsman*(October 19, 1933).
- Childe, Vere Gordon, “Before the Aryans”, *The Times*(August 3, 1933).
- Childe, Vere Gordon, “Changing Methods and Aims in Prehistory”, T. C. Patterson and C. E. Orser Jr. ed., *Foundations of Social Archaeology: Selected Writings of V. Gordon Childe* (New York: Altamira Press, 2004).
- Childe, Vere Gordon, “Conscientious Objectors”, *Hermes XXIII*(1) (1917).
- Childe, Vere Gordon, “G. Kossinna Ursprung und verbreitung der Germanen in vor- und frühgeschichtlicher Zeit”, *Man* 27(1927).
- Childe, Vere Gordon, “Is Prehistory Practical?”, *Antiquity*, 28(1933).

- Childe, Vere Gordon, "On the Date and Origin of Minyan War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35-2(1915).
- Childe, Vere Gordon, "Races, Peoples and Cultures in Prehistoric Europe", *History*, 18(1933).
- Childe, Vere Gordon, "Retrospect", *Antiquity*, 126(1958).
- Childe, Vere Gordon, "The Antiquity of Nordic Culture", W. Koppers, ed., *Die Indogermanen-und Germanenfrage, Wiener Beiträge zur Kulyurgeschichye und Linguistik* 4(1936).
- Díaz-Andreu, Margarita, "Childe and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Archaeology", *European Journal of Archaeology*, 12-1-3(2009).
- Dutt, Rajani Palme, "The Pre-historical Childe", *Times Literacy Supplement*, 3304(June 34, 1965).
- Frick, Wilhelm, "The Teaching and History and Prehistory in Germany", *Nature*, 130(1934).
- Haßmann, Henning, "Archaeology in the 'Third Reich'", H. Härke ed.,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2).
- Härke, Heinrich, "Archaeology and Nazism: A Warning from Prehistory", V. Mordvintseva, H. Härke and T. Shevchenko eds., *Archaeological and linguistic Research: Materials of the Humboldt-Conference* (Simferopol - Yalta, 20-23 September, 2012) (Kiev: Stilos, 2014).
- Klejn, Leo, "Gustaf Kossinna (1858-1931)", T. Murray ed., *Encyclopedia of Archaeology: The Great Archaeologists* (Santa Barbara: ABC-Clio, 1999).
- Kossinna, Gustaf, "Die Vorgeschichtliche Ausbreitung der Germanen in Deutschland", *Zeitschrift des Vereins für Volkskundes*, 6(1896).
- Massin, Benoit, "From Virchow to Fischer: Physical Anthropology and "Modern Race Theories" in Wilhelmine Germany", G. W. Stocking Jr. ed., *Volkgeist as Method and Ethic* (Madison: The University of

- Wisconsin Press, 1996).
- Meheux, Katie, “Digitising and Re-examining Vere Gordon Childe’s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 *Archaeology International*, 20(2017).
- Morris-Reich, Amos, “Race, Ideas, and Ideals: A Comparison of Franz Boas and Hans F.K. Günther”, *History of European Ideas*, 32-3(2006).
- Veit, Ulrich, “Gustf Kossinna and His Concept of a National Archaeology”, H. Härke ed.,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2).
- Williams-Freeman, J. P., “Race and Culture”, *Antiquity*, 29(1934).
- Wolfram, Sabine, “‘Vorsprung durch Technik’ or ‘Kossinna Syndrome’?: Archaeological Theory and Social Context in Post-war West Germany”, H. Härke ed.,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2).